

국민문학의 경계지대 ‘조선부락’

: 1940~50년대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

오세종 (류큐대학)

국문요약

본고는 1970년을 전후해서 주목 받기 시작한 이른바 ‘재일조선인 문학’보다 앞서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조선부락’이라는 장 및 주제야말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등장을 뒷받침했다는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그래서 1940년대, 1950년대의 대표적인 일본어 잡지인 『民主朝鮮(민주조선)』, 『ヂンダレ(진달래)』의 여러 작품을 분석했다. 또한 1950년대에 ‘조선부락’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 강순(姜舜)의 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강순의 작품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듯, ‘조선부락’은 일본과 조선의 경계선상에 있는 마을로서, 그 때문에 복수의 언어가 난무하고 남북한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며, 역사적 기억이 나타나면서 또한 재일조선인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장소이다. 그 때문에 ‘조선부락’이라는 장소나 주제는 특정한 ‘국민’이나 ‘민족’에 수렴하지 않고, 또 그것들에 저항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조선부락’과 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은 겹치는 것, 따라서 이른바 ‘재일조선인 문학’의 등장에 앞서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불안정한 문학공간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주제어: 조선부락, 民主朝鮮, ジンダレ, 강순, 재일조선인 문학, 김시종, 고향, 조국, 일본어 문학, 국민문학

* 일본어 원제는 “國民文學の境界地帯としての「朝鮮部落」—1940-50年代の文學作品を中心に”이고, 이한결이 번역함.

I. 재일조선인문학과 조선부락

‘재일조선인 문학’의 작품군이 일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전후라고 할 수 있다.¹⁾ 김학영(金鶴永)의 등장, 재일조선인 문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아쿠다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이회성(李恢成)이나, 시인 김시중(金時鐘)의 재등장 등이 그 징표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재일조선인이 쓴 문학작품은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으로는 김달수(金達壽), 허남기(許南麒), 장두식(張斗植) 등이 ‘해방’ 직후부터 문학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이른바 ‘재일조선인 문학’과 그 이전의 문학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두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이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존재방식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미야자와 쓰요시(宮澤剛)가 지적하듯이, 해방 직후에도 김달수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여 창작을 하였는데, “스스로가 현재 그 작업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의 관계,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 언어는 그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일본어는 도구였지 격투 대상이 아니었다(김달수의 이 발언은 그와 면식이 있었던 김사량(金史良)이나, 데뷔 당시의 장혁주(張赫宙) 등이 말했던 바, “일본어를 사용하여 널리 조선에 대해 일본에 알린다”는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²⁾ 그에 비해 1970년대를 전후로 등장하는 재일

1) 李孝德, “ポストコロニアルの政治と‘在日’文學”, 『現代思想』, 青土社 2001년 7월 임시증간호; 磯貝治良, ‘在日’文學論 (경新幹社, 2004) 등.

2) 괄호 안은 김달수의 발언. 인용은 宮澤剛, “一九五〇年代(から)の在日朝鮮人文學—はみ出すことと遅れること—”, 『文學』, 岩波書店 2004년 11월호, p. 99.

조선인 문학의 작가들에게, 일본어는 일본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의 획득이나 계속되는 식민지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항상 격투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그녀들은 “왜 일본어로 쓰는가”를 항상 질문 받고 질문 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석범이 이야기하였듯이 조선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창작하는 것이 어려운 작가들에게 있어서 “왜 일본어로 쓰는가”, “왜 쓰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들을 한 묶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어로 쓰고 있는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왜 일본어로 쓰는가”라는, 일본어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 위에, “왜 쓰는가”라는 존재에 관계하는 것으로서의 중층적인 관점을 중첩시켜서 보아야 한다.³⁾

두 번째 차이는 문학작품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1955년 5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지지하는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결성되었다. 조총련은 북한의 문학자단체와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조선어를 사용할 것을 문화방침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걸기 시작하였다. 조총련의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래로 총결집시켜, 조국남·북한부의 문학예술인들과의 제휴를 확고히 하고, 미제를 철거시켜 그 앞잡이인 이승만 도당을 고립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³⁾ 金石範, 在日朝鮮人文學, 『新編「在日」の思想』, (東京: 講談社, 2001), p.161..

2. 우리는 공화국의 문예정책에 확실하게 입각하여,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선진국가의 문화성과를 섭취하여, 민주민족문학예술의 창조·보급에 헌신한다.

3.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일체의 반동문화의 조류에 반대하며, 군집문화의 수준을 높여 재일동포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에 헌신한다.

4. 우리는 조·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 및 양국인민간의 우호친선을 기도하며, 국교정상화를 위해 헌신한다. (『문학예술(文學藝術) 창간호)

강령의 1과 2는 조선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으며, 쓰여 있지는 않으나 창작에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었다.

또한 조총련 소속의 문학자들은 작품을 발표할 때 조총련의 독자적인 ‘비준’ 제도를 거쳐야만 했다. ‘비준’이란 간단하게 말해 조총련의 문화방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적인 ‘검열’이었다. 1967년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체제가 굳어감에 따라 조총련의 규제도 강화되어 갔다.

그러한 상황 아래, 조선어로 쓰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이에 고뇌하던 이들이나 조직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이 조총련과 결별하여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사회에서 발표의 자리를 찾았으며, 또 일본의 문학자나 독자들에게 의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에는 김학영과 같이 남한을 지지하는 조직, 민단에서 일하면서 문학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학영을 포함한 재일조선인 문학 작가들은, 북한과 남한 양쪽 모두와 단절된 곳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찾는 이들이었다. 거칠게 북한 / 남한 / 기타로 분류한다면, 1970년 전후에 주목받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것은 주로 ‘기타’에 속하는 이들의 문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 ‘기타’라는 곳을 바꿔 말하자면, 그 위치가 일본과 조선의 틈새에 있

으며 언어 갈등이 있고, 조직이나 국가와 알력(‘국민’과 ‘민족’을 둘러싼 마찰)이 있어서, 다양한 억압, 모순, 투쟁이 소용돌이치는 장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가 제기하는 것은, ‘기타’의 틀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의 문학이 일본사회에서 부상하기에 앞서 나타난 ‘조선부락’이라는 장소와 주제야말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등장, 즉 ‘기타’ 영역이 출현하는 것을 무대 뒤에서 지탱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이다.

조선부락이란 식민지 시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들이 밀집함에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下關)시나 오오사카(大阪)의 쓰루하시(鶴橋), 카나가와(神奈川)현의 카와사키(川崎)시, 도쿄(東京)의 미카와시마(三河島)·에다가와(枝川) 등은 지금도 많은 조선인들이 생활하는 대표적인 밀집지역이다.

특히 유명한 것은 오오사카 쓰루하시의 조선인 밀집지역(‘이카이노(猪飼野)’라고 불렀다)으로, 예를 들어 김시중은 시집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東京: 東京新聞出版局, 1978)에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그렸다. 서두에 위치하는 작품 「보이지 않는 마을(見えない町)」(=이카이노)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없어도 있는 마을 / 그대로인 채로 / 없어져버린 마을 / 전차는 될 수 있는
한 떨어져서 달리고 / 화장터만은 바로 그곳에 / 놓인 마을. / 모두가 알지만
/ 지도에는 없고 / 지도에 없으니 / 일본이 아니며 / 일본이 아니기에 / 없어
져도 좋은 / 어찌돼도 상관없으니 / 제멋대로라네(...) / 밤눈에도 확실히 흐
리게 보여서 / 만날 수 없는 이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 먼 일본에 있는 / 조
선의 마을.⁵⁾

4) 이상, 두 번째 차이에 관한 부분은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の歴史—1945年—1970年”, (一橋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년, 근간예정) 제2장 제1절을 참조.

5) 金時鐘, 『猪飼野詩集』, (東京: 東京新聞出版局, 1978), pp. 8~18.

‘이카이노’라는 ‘보이지 않는 마을’은 일본사회에서 불가시화된 ‘없어도 있는 마을’이며, 그렇기에 ‘일본이 아니며’, ‘일본이 아닌’ 까닭에 이질적인 장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 작품은 이질적인 공간인 ‘조선의 마을’을 인식 가능한 것으로 부상시킨다.

김시종은 후에 “조야할 정도로 ‘조선’ 그 자체인 재일조선인의 원형상”이 집단부락을 형성한 것이 ‘이카이노’이며, “원초적인 조선을 유지시키고 온존하게 하는 근원의 것,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도 ‘조선인’으로서의 원초적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⁶⁾ 작가 김석범(金石範) 역시 ‘이카이노’의 조선시장은 “조선인의 생활 원형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신기하게도 힘찬 생활력”이 존속하는 장소로 ‘토착의 언어’, ‘습관’, ‘풍속’, ‘제사용 제기’와 같은 봉건적인 것들도 포함하는 ‘민족의 핵’, ‘원초적(primitive)이라고 해야 할 법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⁷⁾

즉, ‘조선부락’은 일본 안에 존재하는 질적 외부로서 일상을 이질화시키기도 하며, 또한 ‘원초’라고 이야기되었듯이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사로 잡히지 않는, 원형적인 조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국에서도 민족적 정체성, 즉 ‘민족의 핵’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술한 ‘기타’의 영역과 ‘조선부락’은 중첩되는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부락’의 묘출(描出)은 성윤식(成允植)의 「조선인부락(朝鮮人部落)」, 양석일(梁石日)의 『밤을 걸고서(夜を賭けて)』, 원수일(元秀一)의 『이카이노 이야기(猪飼野物語)』, 종추월(宗秋月)의 『이카이노 · 여자 · 사랑 · 노래(猪飼野 · 女 · 愛 · うた)』, 현월(玄月)의 『그늘의 보금자리(蔭の棲みか)』 등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6) 金時鐘, 「「猪飼野」の暮れ」, 『「在日」のはざままで』, 立風書房, 1986, p. 450.

7) 金石範, 「一在日朝鮮人の獨白②—大阪・猪飼野・朝鮮市場」, 『朝日ジャーナル』, 1969년 2월 23일호, 11(8), p. 90.

만큼 계승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조선부락’이 문학작품 속에서 언제 어떻게 부상하였으며, 또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1940~1950년대 문학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밝혀보고자 한다.

II. ‘조선부락’이 나타나는 배경- 해방 직후~1950년대 후반까지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 소속의 젊은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이 개시되었다. 그에 따라 문학자 조직(1947년에는 재일조선문학자회(在日本朝鮮文學者會))이 결성되었으며, 조선어와 일본어 잡지도 창간되었다. 조선어 잡지로는 『조선시(朝鮮詩)』, 『조련문화(朝連文化)』, 『조련청년(朝連靑年)』, 『백민(白民)』 등이 있었으며, 일본어 잡지로는 『청년회의(靑年會議)』, 『조선문예(朝鮮文藝)』, 『인민문화(人民文化)』, 『민주조선(民主朝鮮)』 등이 창간되었다. 많은 잡지들이 단명했고 유통량이 적었던 탓에 산일된 권호도 많다.

이 글에서는 1945년~1950년 초기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잡지 『민주조선』(1946년 4월 ~1950년 7월)과 그 시기에 활약한 김달수, 허남기의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민주조선』에서도 ‘조선부락’이 무대가 되는 문학작품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송차영(宋車影)의 「잔해(殘骸)」나 장두식(張斗植)의 「귀향(歸鄕)」·「운명의 사람들(運命の人々)」, 손인장(孫仁章)의 「이천씨에 대한 두 장(李川氏についての二章)」, 이은직(李殷直)의 「에다가와초 일번가(枝川町一丁目)」 등이 그러한 작품에 해당된다.

그러지는 조선부락은 일본의 것인 경우도 있고 한반도의 것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무대가 한반도인 경우 봉건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한 전근대적인 인물이나, 친일파인 주인공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은직의 「에다가와쵸 일변가」에서와 같이 패전 후 일본 내의 조선부락이 무대인 경우에도, 이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부락에 모이는 사람들과 그 생활의 곤란함을 그리면서도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고향을 상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이 시기 작품에 나타나는 일본의 ‘조선부락’은 부락 그 자체를 그려내는 것이기보다는, 그 묘사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데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인의 생활이 빈곤함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는 고향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한 발판으로서도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부락에 있는 강노인의 집안이 항상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에서도 …… 송은 호감을 느꼈다. 그리고, 언제였던가, 그는,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노인으로부터 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강노인의 고향은 마산에서 오리(五里) 정도 떨어진 농촌이었다.⁸⁾

물론 이러한 특징의 원인으로는, 글쓴이의 직접적인 ‘조국체험’의 유무도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송혜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방 직후에 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청년들이었으며, 그들은 황국신민화 정책이 침투되었던 시기 조선에서 교육을 받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⁹⁾ 그렇기에 ‘조국체험’이란 무엇이며 식민지 치하의 고향의식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며, 무비판적으로 전

8) 李殷直, 「枝川町一丁目(제2회)」, 『民主朝鮮』, 1949년 9월호, p. 71. (인용은 『復刻民主朝鮮』, 第四卷 (東京: 明石書店, 1993), p. 383에서)

9) 宋惠媛 앞의 글, “在日朝鮮人文學의 歷史 -1945年~1970年,” pp. 20~21쪽 참조.

제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조선부락’의 묘사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특징을 띠는 것은 직접적인 ‘조국체험’에 입각하여 창작되기보다는, 해방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봉건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고향을 작품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다가올 조국 또는 고향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실정에 가깝다. 물론 그곳에는 분단되어가던 조국이나, 남과 북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정치적 입장, 그리고 전쟁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창작태도의 내면화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까닭에 ‘조선부락’은 작품 안에서 다루어지기는 할지언정 그 자체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 조국을 지향했기에 ‘조선부락’은 ‘임시거처(假の宿)’로 의식되었으므로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⁰⁾ 이것을 조국 지향적인 사고양식의 생성과 발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선이 조국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는, 당시의 스타였던 허남기나 김달수도 별반 다른 점은 없었다. 시인 허남기가 1952년에 출판한 일본어 시집 『조선 겨울 이야기(朝鮮冬物語)』(그 중 일부는 잡지 『민주조선』에 연재되었다)의 목차를 보면, 주로 한반도 남반부를 시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부락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허남기가 21살까지 경상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허남기가 일본어를 사용하여 조선을 그려냈다는 점으로, 그 시선이 철저하게 일본 반대편에 있었음을 예증한다. 이

¹⁰⁾ 남정양은 논설 “조선인의 생활의 존재방식(朝鮮人の生活のありかた)”에서, 재일 조선인들의 거주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말에는 일본에서의 거주권을 확보하고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南廷揚, “朝鮮人の生活のありかた”, 『青年會議』, 1948년 9월호(창간호).

는 대표작인 『화승총의 노래(火繩銃のうた)』(1951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작가 김달수는 10살 때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조선어를 잘 하지 못하였으나, 초기작품에서는 일본과 조선을 오가는 청년을 등장시킴으로서 양측 모두를 그려냈다. 그러나 『후예의 마을(後裔の街)』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조선의 현상을 그려내는 데에 역점을 둔 느낌을 준다.¹¹⁾ 또한 일본의 조선부락을 그려내는 경우도 그 배경은 식민지 시기이거나, 「이름도 없는 부락(名もなき部落)」처럼 해방 이후라 할지라도 북한의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과 공감하는 인물로서, 봉건적 가치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곤 하다. 즉, 부락을 그려낸 다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가올 조국을 향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달수의 시선도 또한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김달수가 일본 안에서 조선을 찾는 현장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이때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해방 직후의 시선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의 외부를 향하였기에, 조선부락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체재장소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그 의미여야 하는 ‘조선’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것이다.

1950년 이후에도 『조선평론(朝鮮評論)』, 『평화와 교육(平和と教育)』,

11)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그가 경성신보의 기자로 근무했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방 후 김달수가 신일본문학회(新日本文學會)의 이사였던 점, 그곳에서 조선(문학)의 번역자소개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점도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の歴史 -1945年~1970年,” pp. 21~30.

『진달래(チンダレ)』, 『문학보(文學報)』, 『조선시보(朝鮮時報)』, 『새로운 조선(新しい朝鮮)』, 『청동(靑銅)』, 『군중(群衆)』, 『가리온(カリオン)』 등, 비록 단명하였으나 다수의 일본어·조선어 잡지가 창간되었다.

또한 1950년대는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육투쟁이나, 일본공산당의 실력투쟁 방침 아래, 스이타히라카타(吹田枚方)사건 등이 일어났고, 많은 조선인들도 이에 참여했다. 그뿐 아니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외국인 등록법의 성립, 북한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일본 및 북한 적십자사에 의한 협의 개시, 1955년의 조총련 결성 등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상과 같은 정세는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이은식은 『조선평론』에서 “우리의 긍지를 지킨다(わが誇りを守らん)”를 연재하였는데,¹²⁾ 이 작품에서 그려진 것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밀집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민족교육사수투쟁이었다. 또한, 오임준(吳林俊)은 일본의 국가 권력에 대한 조선인들의 투쟁을 조선부락을 무대로 삼아 기록했다.

다시금 너희들은 왔다 / 다시금 너희들은 습격해왔다 /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 / 새벽녘의 어둠을 찢고 / 군화의 울림 무시무시하게 / 지금 이 에다가와 부락을 포위하여 / 지금 이 피와 눈물로 범벽이 된 / 이 가난한 조선인 / 칠백오십명을 둘러싸고 있다 …… / 우리들에겐 탄약도 없다 / 우리들은 박격포도 없거니와 전차도 없다 / 그러나 너희들은 / 앞으로 갖은 폭압을 가하며 / …… / 습격의 쓰나미가 밀려온다해도 / 우리들의 인종(忍從)과 / 우리들의 쇠사슬은 이미 끊어져가고 있으며 / 이미 해가 보이는 아침은 가까운 것이다 …… 코오토오(江東)의 한 구석은 진지(陣地)다¹³⁾

12) 李殷直, “わが誇りを守らん”, 『朝鮮評論』 제 2·3·5·6·7호, 1952년 2·4·9·12월 · 1953년 4월.

13) 吳林俊, “たとえ嵐はすさぶとも”, 『朝鮮評論』 제5호 (1952년 9월), p. 58. 강조는 인용자.

이 시의 배경도 역시 1949년에 일어난 민족학교 탄압, 조선의 강압적 해방에 대한 기억이나 한국전쟁 등이다. 도쿄의 코오토오(江東)구에 있는 조선인 부락 ‘에다가와 부락’이 조선인들의 ‘진지’라는 점, 그것 때문에 그/그녀들의 연대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부락’은 음으로 양으로 생활에 밀착되어 부상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제일조선인을 둘러싼 정치상황도 있었지만, 우선은 조선인 조직 내부의 젊은이들에 의한 생활권 획득·옹호운동의 전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영환이 지적하였듯이 조총련의 전신격 단체였던 조련은 생활권 옹호투쟁을 1946년 무렵부터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때 투쟁의 중심을 맡았던 것은 조선인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강한 지향성을 지닌 새로운 활동가층이었다. 젊은이들이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 제일본조선인연맹은 조선의 독립에 공헌하는 것과 일본사회에서의 권리를 획득한다는 ‘이중과제’를 안게 되었다.¹⁴⁾

둘째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방 후의 문화를 이끌어간 이들이 일본에 남은 젊은 세대들이었다면, 치열한 생활권 옹호투쟁과 더불어 문학활동에서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조선인부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잡지 『군중』의 1952년 10월호에는 “부락탐사(1)-마치다(町田)부락을 탐방하며(部落探査(一) —町田部落を訪ねて)”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잡지가 모두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로 지속적인 ‘탐사’가 이루어졌는지는 향후 조사할 과제이지만, 조선부락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던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셋째로 제일조선인들에게 ‘조국’이란

14)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13), p. 159, 323.

무엇인지가 어딘가 깊은 층위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도, 일본 내부의 이향(異郷)인 ‘조선부락’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세 번째 사항은, 잡지 『진달래』에서 전경화(前景化)한 문제였다. 제일조선인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1959년에 실현된 북한행 귀국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음이었으며, 잡지 『진달래』는 이 귀국운동과 병행하듯 출판되었다.

잡지 『진달래』(1953년 2월~1958년 10월)는 조총련이 결성되기 전 일본 공산당의 지도 아래 창간되었다. 실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방침을 전환한 일본공산당이 민중을 문화적 관점에서부터 반미, 반요시다(反吉田), 반이승만으로 향하게끔 하려는 것이 애초의 창간 목적이었다. 그러나 1955년 일본공산당이 조선인에 대한 ‘지도’를 방기하고 같은 해 5월 조총련이 결성되자 『진달래』는 조총련의 지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조총련에 소속되기 이전(『진달래』 전기), 즉 일본공산당 아래에 있던 『진달래』 작품의 특징은, 일본 내 조선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 작품이 많았으며, 원수폭금지(原水爆禁止)를 추구하는 작품이나 일본인과의 공동투쟁을 호소하는 시가 다수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 여성이 쓴 시작품이 다수 게재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부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콩나물나가야(もやし長屋)라고 / 불리는 / 기울어진 뒷골목 // 낱을 만큼
 낱아놓은 / 아이들이 / 왈왈 소란을 피우는 곳 / 박씨가 / 소변으로 범벅인
 아이를 업고서 / 입을 벌린 채 / 느슨한 햇볕을 탐하고 있다 / [...] / 해도 기
 울고 / 비틀비틀 / 자라나는 콩나물 / 콩나물을 닦은 / 뒷골목의 생활¹⁵⁾

조총련의 지도 아래로 옮겨간 이후부터는(『진달래』 후기) 앞서 언급한

15) 洪宗根, 「もやし露地」, 『ヂンダレ』 제3호 (1953년 6월), p. 12

조직의 문화방침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총련 주류파의 움직임과 그것에 반발하는 문학자(주로 김시중, 정인, 양석목) 사이에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다. 현상적으로는 조직적 방침에 따라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조국지향의 작품을 쓴다는 쪽과 지금 현재 일본사회에 사는 이로서 ‘유민(流民)’적인 현실을 대면한다는 쪽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유민’이라는 단어는 시인 김시중이 그의 작품 「가을의 노래(秋の歌)」에서 사용한 것이었으나, 조총련 주류파는 ‘조국’이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실향자로서 방황하는 이들이라는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하였다.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겠으나, 조직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정인(鄭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념으로서의 조국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화된 실체로는 감지할 수 없는 정신 상태(문자 그대로 유민적인 것)의 근원을 찾아내어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우리들의 창작은 존재할 수 없다. 과거 유민의 기억이 조국을 실체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 근원은 일본의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인적 정서이며 자본주의적인 감성이다.¹⁶⁾

즉 현실의 생활이든 개개인의 감성이든 간에 조선인의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일본(어)적인 측면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파악하여 극복해나가는 것, 정인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제였다.¹⁷⁾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념적인 대상이었던 ‘조

16) 鄭仁, “朝鮮人が日本語で詩を書いていることについて—「ヂンダレ」創作上の問題”, 『樹木と果實』, 1956년 9월호. 인용은 細見和之, “『ヂンダレ』『カリオン』の詩人群像—〈在日文學〉という場のはじまり”, 『復刻版『ヂンダレ・カリオン』解説・鼎談・總目次・索引』(東京: 不二出版, 2008), p. 54쪽에서.

17) 이러한 소위 ‘유민(流民)의 기억’ 논쟁은 각각의 주장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가

국도 감성적·실감적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일원적, 관념적으로 ‘조국’을 대하고 그려내는 방식을 탈구축(脫構築)하면서, 그것이 놓쳐버렸던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체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표현하는 작품이 『진달래』 후기에 많이 게재되는 이유를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정자(李靜子)의 「눈물의 계곡(淚の谷)」(15호), 조삼룡(趙三龍)의 「나상(裸像)」(17호), 양정웅(梁正雄)의 「실험해부학(實驗解剖學)」(18호), 정인의 「석녀(うますめ)」(19호), 안병순(安秉順)의 「암고양이(牝猫)」(20호)가 그러한 작품에 해당된다.

‘조국’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진달래』 후기에 이르러서는 언어(일본어)를 고도로 조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표현 기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아마도 ‘조국’에서도 타자인 존재, 즉 재일조선인 자체를 잡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자신들=재일조선인의 곤궁한 삶에 대한 표현으로 향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장소와 함께 그려진 것이었다. 조총련 주류파와의 반목이 전경화된 이후, ‘조선부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가 남아 있다.

태양이, 빨갱게 충혈된 / 잠이 모자란 얼굴을 들어 올리면 / 부락은 소음의 소용돌이 // 과수원의 복숭아 향기 / 배고픈 어미돼지의 울음소리 / 주둔군 쓰레기장을 뒤지는 / 닭, 들개의 무리 / [...] 군용트럭 한 대 / 겹겹이 쌓여진 선진문명인의 / 화려한 생활의 찌꺼기 / 막이 열리는 활극의 무대 / 부락사람들의 오늘의 양식¹⁸⁾

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宇野田尙哉, 『『ヂンダレ』 『カリオン』 『原點』 『黃海』 解説, 『復刻版 『ヂンダレ・カリオン』 解説・鼎談・總目次・索引』 (東京: 不二出版, 2008). 또한, 吳世宗, 『リズムと抒情の詩學』 (東京: 生活書院, 2010)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언제부터 / 이 버려진 세계가 만들어졌던가 / 공장도 없고 / 건물도 소원
 도도 없고 / 영화관 따위는 있을 수 없는. / 매우 황폐한 곳이다. // 확실치
 않은 거리 속에서 / 필요했던 친구는 /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일본에 있었다
 / 변두리의 도회에 있었다 / 기운이 넘치는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 A도 있
 다 / B도 있다 / [...] / 통풍이 나쁜 / 좁은 방에 / 조국이 넘치고 있다. / “돌
 아가면 삼태기라도 땔꺼야” / [...] 나는 / 화제의 밖에 있는 / 찢겨진 아픔을
 생각하고 있었다¹⁹⁾

『진달래』 전기에 속하는 작품이 알기 쉬운 말로 신변을 직접적으로 그
 려냈던 반면, 인용한 후기작품은 구체적 추상이라고 해야 할 법한 방식
 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부락 안에서 돼지를 기르는
 탓에 약취가 나고, 그 돼지가 굶주릴 정도로 가난한 부락의 생활 -쓰레
 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는 ‘비문명’적인 생활-이 그려지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조국’(=북한)으로 돌아가 “삼태기라도 땔꺼야”라는 말의 뒤
 편에서 가난 때문에 머물지도 못하고 ‘귀국’하는 것도 본의가 아닌 ‘친구’
 의 ‘찢겨진 아픔’이 포착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상세하게 논할 수는 없으나,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계
 재되었던 일본어 작품을 읽어나가 보면,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과 그에 대한 저항 가운데 시가 쓰였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
 를 들어 『진달래』에 게재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 다른 잡지에 실린
 작품 “아버지는/ 수상한 / 일본어로 / 목숨을 유지했다 // 자식은 / 더듬
 거리는 / 조선어로 / 살아가려 한다 // 어머니는 / 부엌에서 / 소리없이 울
 었다 / 일본의 하늘은 / 아직 / 흐리다”²⁰⁾ 등은 가족을 찢을 것 같은 형태

18) 金華奉, 「啞の少年」, 『ヂンダレ』 제19호 (1957년 11월), p. 2.

19) 鄭仁, 「なくしている現実」, 『ヂンダレ』 제15호, p. 26.

20) キム・ジュッテ, 「日本の空」, 『新しい朝鮮』 1955년 4월호. 인용은 『在日朝鮮人
 關係資料集成』 第一〇卷 (東京: 不二出版, 2001) p. 14.

로 그러한 정착과 저항을 나타낸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진달래』의 후기에 이르러 재일조선인의 존재자체를 그 생활 공간과 함께 파악하고자 하는 지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저항이 일본에 대한, 일본어에 대한, 조총련에 대한, ‘귀국’에 대한, 북한이 이상화하는 정형적 표현양식에 대한, 나아가서는 관념적인 ‘조국’에 대한 것 등, 몇 겹의 층으로 겹쳐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밖으로 향했던 시선이 내면으로도 향하게 됨에 따라, ‘재일’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조국’은 어디인가, 누가 ‘민족’의 일원인가 같은 질문이 부상하게 되었다. 호소미 카즈유키(細見和之)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진달래』는 확실히 ‘재일문학’이라는 물음의 장 그 자체가 되었다”²¹⁾고 말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부상하고 때로는 의식되지 않은 채 전제되었던, 시의 기반(부락)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부락’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재일조선인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Ⅲ. 강순 시 작품의 ‘조선부락’²²⁾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기(1950년대)에 ‘조선부락’은 어떻게 그려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초반부터 ‘조선부락’을 제재로 삼은 시를 발표한 강순²³⁾을 다루고자 한다.

21) 細見和之, 『ヂンダレ』 『カリオン』의詩人群像 —在日文學〉 という場のはじまり, 『復刻版『ヂンダレ・カリオン』解説・鼎談・총목차・索引』, p. 55.

22) 이 절은 吳世宗, “姜舜『なるなり』論—民衆 朝鮮部落 言語戰略としての二つの“翻譯”(日本東洋文化論集』 제20호, 琉球大學法文學部, 2014년 3월)의 제3절과 내용이 중복됨.

23) 강순(姜舜)(1918.2~1987.2, 본명: 강면성(姜冕星))은 경기도 강화도에서 태어나,

강순은 주로 조선어로 시를 만들면서 일본어로도 썼었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의 특이한 존재이자, 매우 중요한 문학가이다. 또한 조선어 시집 『강순시집(姜舜詩集)』(1964년)과 일본어 시집 『날나리(なるなり)』(1970)는 그때까지 그가 쓴 그의 작품들을 집성한 것이며, 각각 그가 조총련을 탈퇴하기 이전과 이후에 출판되었다. 이 둘은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과 조국에 대한 관점에서도 특이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한 관계 아래, 두 시집은 서로를 비취내듯이 ‘조선부락’을 독특하게 그려내고 있다.

1. 이향(異郷)으로서의 ‘조선부락’

강순이 『강순시집』과 『날나리』²⁴⁾에서 그려낸 ‘조선부락’은 언어뿐만 아니라, 내용적에서 차이가 있다. 작품 「조선부락」(1953년)(『강순시집』에서는 「양철 지붕 아래(ブリキ屋根の下)」)은 일본어판과 조선어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어느 한쪽에는 없는 시구가 각각의 시에 들어 있다.

조선어판에는 양철 지붕의 모습이나, 햇빛이 비치지 않아 마르지 않는 골목의 묘사 등 일본어판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1936년에 독일 후, 와세다(早稻田)대학 불문과에 입학. 그 후 조선학교의 교사, 조선신보의 기자 등 조총련에서 일했다. 1967년 조총련 탈퇴 이후에도 말년까지 끊임없이 시 작품을 남겼다. 일본어 작품과 관련하여, 강순은 김지하나 조태일 등, 한국의 저항시로 불리는 작품들을 다수 일본어로 번역하였으며, 한국 현대시를 일본에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24) 『강순시집』은 1964년 강순시집발간회(姜舜詩集發刊會)에서 출판. 『날나리(なるなり)』는 1970년에思潮社에서 출판.

비 새는 지붕
 맞지않는 미닫이
 미닫이 밖이 곧 한데이며
 문풍지가 밤새 울었다.

습기 쳐오르는 다다미 깔기깔기에
 밤이나 낮이나 전등불이 희끔히 내려 앉아
 세월은 이제도 밤길을 가는 듯

[...]

채송화 피듯 피듯
 정분이 런던아 다정한 곳
 여기 같은 피 지니고
 여기 같은 조국 지닌
 울타리 없는 조선부락.(『강순시집』, 75~77쪽(부분))

조선어판에서는 ‘조선부락’의 안쪽에 있는 사람, 즉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지붕’이나 ‘미닫이문’, ‘다다미’, ‘전등’을 점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설령 지엽적이라도 가까스로 ‘조국’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임시 거처’ 의식이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내부에서 ‘조국’을 찾아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일본어판에서는 조선어판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부락’을 바라본다. 조선어판에는 없는 ‘지붕’, ‘감옥방(座敷牢)’, ‘소외된 골목(横町)’(52~53쪽)과 같이 대상과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그렇게 이름붙일 수 있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다.(이음새 투성이 함석판 위에 함석판 / 나가야(長屋)의 지붕 아래에는 / 일년 내내 해가 들지 않는다 / 감옥방처럼(52쪽)). ‘소외된 골목’의 경우, ‘조선부락’ 전체를 조감하는 시점을 도입함으로써 나온 단어일 것이다. 덧붙여 그러한 객관적 시각에 의해, 조선어판에서는 읽어내기 어려운 가치평가도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다. ‘나가야’

‘감옥방’ ‘소외’는 열악함이라는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일 것이며, 그것에 겹쳐지듯이 쓰인 “분명히 자유의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 마를 틈이 없었다”(53쪽) 등도 이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놓인 상황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해방 후 획득해낸 것으로 여겼던 ‘자유’는 ‘조선부락’이 ‘소외’된 장이기 때문에 행사되지 못한 채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한 객관화나 가치평가는 ‘조선부락’을 일본 내부의 이향(異郷)으로서 일본과의 명백한 관계성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어판의 마지막 연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새벽녘의 습격〉〉이 있는 후로
 울타리가 없는 이 부락의 사람들은
 민족의 준엄한 애정을 더욱 새로이 했다
 병에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면
 곧바로 서로 돕기 시작하였고
 부락에 새색시가 오는 날은 모두의 결혼일
 그리고 나이 든 이를 애도하는 날에는
 애호애호(哀號哀號) 모두 곡소리를 낸다
 이 조선부락이라 불리는 곳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 (『날나리』, 55쪽(부분))²⁵⁾

소외되고 ‘습격’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베니아 판자끼리의 두터운 친분”(54쪽)이 형성되고 또한 “민족의 준엄한 애정”도 발생한다. 즉 일본사회와 그러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삼아 ‘정’이 생성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25)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あかつきの来襲》があつてから / 垣根のないこの部落のひとたちは / さらに民族の峻厳な愛情をあらたにした / 病にたおれた噂がとぶと / ただちに助け合いがはじまり / 部落に花嫁がくる日はみんなの結婚日 / そして年寄りの弔いの日には / 哀号哀号! みんな哭声屋になる / ここ朝鮮部落と呼ばれるところ / 故国を偲ぶひとたちの仮の住居

다. 인용된 부분에 대응하는 표현이 조선어판에 없는 것을 보면, 일본어판에서는 '조선부락'의 외부를 염두에 둔 채로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부락'이 객관적으로 띠는 가치를 포함하여 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향인 '조선부락'은 단순히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판에서 보이는 이 특징은 작품 「수도꼭지(蛇口)」나 「샘의 기억(泉の記憶)」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락에 사는 조선민중의 일상생활에서 환기되는 식민지 역사의 기억이나, '고향'과의 거리 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일본어판은 객관화의 정도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조선어판은 시점을 내부에 두면서 이질적인 공간인 '조선부락'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점 설정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안팎에서부터 다각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일본, 고향, 역사적 기억 등을 포함시키면서, '조선부락'을 빈곤하면서도 소란스러운, 일본 안에 있는 이향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2. '조선부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조선부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강순이 그려내는 '조선부락'은 정적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포착된다.

강순이 쓴 시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울림이나 냄새와 같이 형태는 없지만, 오감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작품 「김치(キムチ)」(일본어판, 1956년작)도 오감에 호소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김치」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그것이 이국인 일본에서도 "조선인의 징표"(50쪽)로 존재한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치욕을 받은 기억이 있는 냄새"(50쪽)를 내뿜는 음식이라고 역사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조선어판과 일본어판 둘 모두가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둘을 비교하면 풍기는 냄새의 효과를 그려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장의 기억이 있는 그 냄새가
지금 동경 바다 한다는 거리의
우리우리도 한 레스토랑의 안쪽으로부터
서슴없이 흐르고 있다
본국의 이름대로의 메뉴를 달고
어엿자랑인 오늘날 (『강순시집』, 214~215쪽(부분))

위의 인용에서는 ‘냄새’가 ‘비장(悲壯=秘藏)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냄새가 ‘동경 변두리’의 ‘레스토랑’에서 풍기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김치’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세워주어, ‘본국’으로 접속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어판에서는 조선어판과 대응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치욕을 받은 기억이 있는 냄새이며
예전에 그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던 냄새가
역 앞의 큰길에서 풍기고 있으며
일본의 뒷골목에 풍기면서
지금 유연히 다가오고 있다
김치라는 이름을 내걸고
당당한 표정으로 (『날나리』, 50쪽(부분))²⁶⁾

²⁶⁾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恥辱をうけた記憶のある臭いであり / かつてそれを隠したひともいた匂いが / 駅前の目抜き通りをにおわせ / 日本の裏町を

일본어판에서도 ‘김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첫째로 ‘동경’이 아닌 ‘일본’이라고 되어 있듯이, 수도를 포함하는 전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뒤편(裏町)에서 ‘김치’의 ‘냄새’가 ‘유연’히 풍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둘째로, 조선어판에는 존재했던 ‘조선 사람의 아치’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없으며, 그 결과 조선(인) / 일본(인)이라는 이항대립은 자취를 감춘다.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김치를 ‘받으러 오는 사람(52쪽)은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고난을 견딘 김치 ... 선열(鮮烈)한 그 자미(滋味)를 나눠 갖기 위하여”(52쪽)라는 마지막 연의 표현도,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 모두가 역사성을 띤 김치를 받는 대상이 되어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날나리』의 김치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일본인 / 조선인이 서로의 역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설령 나눠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유연(悠然)히 풍기는 ‘김치’의 ‘냄새’는 저절로 경계를 넘어 그러한 역할을 해낸다. 냄새를 강조하는 것은 조선/일본과 같은 경계선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양측 모두로 침투해나간다는, 모종의 행위수행성을 띠는 것이다. 즉 냄새는 민족의 역사나 ‘조선부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부락’과 그 외부라는 대립적인 구조를 넘어선다.²⁷⁾

다음으로 ‘조선부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해 보고자 한다. 「동정

ただよって / いま悠然と迫ってくる / キムチという名をかかげ / 堂堂たる顔立ちで

27) 마지막 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아 / 이 담도 날 것이 틀림없을 / 그 김치독을 제발 비우지 말아”(216쪽)라는 일본어판에는 없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으며, ‘김치’가 ‘조선부락’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임이 쓰여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는 ‘김치’에 “그보다 더한 조선 사람의 아치”(216쪽)를 담으라는 시구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부활·구성하기 위한 요소라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번지의 사람들(同町同番地のひとたち)(작성년불명, 조선어판 제목은 「밀항해온 모자」)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부터 일본으로 밀항해 온 모자를 그린 작품이다. 조선어판과 일본어판의 모티프는 중첩되지만, 전혀 별개의 작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일본어판의 일부를 인용해보면

일본어의 바다에서 너는 병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기의 소년이여
 너는 유랑의 후예는 아니다
 그 총명한 뇌리에 새겨 넣어라
 너를 이방(異邦)으로 내몰았던 처사에 대해
 밀항선의 야반(夜半)의 공포도 잊지 말아라
 동정동번지의 사람들은
 한조각의 비밀도 숨기지 않는다
 흐린 날에는 풍향계를 올려다보면서
 수상한 구름의 행방을 예측하고
 모두 다 함께 분노를 굳힌다
 검은 눈동자여 안심해도 좋다
 너는 그 안에서 스스로의 원주를 그리면 된다
 (『날나리』, 59~60쪽(부분))²⁸⁾

밀항을 통해 갓 일본에 도착한 ‘소년’은 명백히 외부에서부터 ‘조선부락’으로 흘러들어오는 존재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병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소년’의 등장은 ‘동정동번지’로 ‘조선

28)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日本語の海でおまえは唾になることだろう//
 だが伸びざかりの少年よ / お前はもう流浪の裔ではないのだ / その聡明な脳裡にたたき込んでおくがいい / おまえを異邦に追いやった仕打に対して / 密航船の夜半の恐怖も忘れるな / 同町同番地のひとたちは / 一片の秘密もかくさない / 曇った日には風見をみあげて / あやしい雲の行方を見定め / いっせいに怒りをかためる / 黒い瞳よ 安心するがいい / おまえは其中で自分の円周を引くのだ

어'가 유입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이 말하는 조선어는 '조선부락' 사람들에게는 조선어 습득 정도에 따라 이해하기 힘든 소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의 제목이 '동정동변지의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이다. '동정동변지'라는 비유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몰개성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소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가 충만한 장소, 그렇기에 차이를 찾아내기 힘든 장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유는 (1) '조선부락' 공동주택의 칸막이 하나하나에 구획되어 있지만 기침소리마저도 '부락'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집집마다 울타리가 지극히 낮다는 점, (2) 식민지화에 의해서이든 한국전쟁에 의해서이든 '이방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점에서 '소년'과 '조선부락'은 공통된 존재라는 점, (3) '소년'이 '재류(在留)동포'가 되었으므로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겪게 될 생활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는 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동정동변지'란 '조선부락'이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린 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소년'과 같이 외부로부터 유입해오는 이에게도 그곳은 열려 있다.

강순이 그리는 '조선부락'은 외부와의 관계를 고정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조선부락'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흘러들어온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경계가 닫힌 동시에 열려있는 유동적인 장으로도 파악된다. 작품 「조선부락」의 마지막 말인 '임시거처'는 '조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일시적인 체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해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것은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해 언제나 변동하는 '조선부락'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부락'은 틈새의 마을이다. 틈새의 마을이기 때문에 풍기는 소리나 냄새가 역사적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복수의 언어가 뒤섞이는 것이며, '부락'의 안과 밖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

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강순은 이와 같이 ‘조선부락’을 선구적·전형적으로 표현했다.

IV. ‘조선부락’의 의의, 위기, 그 후

강순이 그려내는 경계선상의 마을 ‘조선부락’은 또한 일원적인 조국지향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이 담겨 있는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장에서는 ‘조국’, ‘조선어’, ‘일본어’, ‘국민’이 질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곳은 ‘민족’ 개념이나 ‘민족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장에서 ‘국민’이나 ‘민족’ 혹은 그 동일성이 거의 저절로 다시 질문되고 교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계선상에서는 가혹한 투쟁이 벌어지며, ‘민족’이나 ‘국민’이 경계선상에 있는 비국민적 ‘소수자’를 삼켜버릴 가능성도 있다.

강순이 그려낸 조선부락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는 것이 모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유입되고 유출되었는가이다. 강순의 시에서 유입되는 것은 망명한 모자였고 유출되는 것은 ‘냄새’나 ‘소리’였다. 한편, 강순은 그리 명시적으로 그려내지 않았으나, 양석일의 「밤을 걸고서」나 성우식의 「조선인부락」에서 확실히 그려낸 것은 일본의 경찰, 공안당국자들의 침입이다.

부락은 완전히 포위됐다. 수색영장과 체포장도 준비했어.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두고 신속히 나오도록!²⁹⁾

²⁹⁾ 梁石日, 『夜を賭けて』(東京: 幻冬舎文庫, 1997), p. 301.

덧붙여 모종의 범죄적인 취급을 받은 경우 종착지는 입국관리소의 수용시설이었다.

어떻게 해도 너는 오오무라 수용소로 가게 된다. 거기서 한국으로 강제송환할거다.

한국에 강제송환되면 공산주의자는 사형이야. 일본에서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너를 사형시켜줄거다. 넌 조국에서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³⁰⁾

즉 ‘조선부락’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침입해온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질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그곳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을 불러들이기도 하는 것이다. 조선인이 국가권력에 구속된 경우, 감옥 이상의 감옥이라고 불렀던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보내졌다. 그리고 조선인이 국외로 퇴거당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맞붙어 있음을 의미했다. 1950년대 초기 외국인 등록령에서 등록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국외퇴거규정에 대한 반대성명이 조선인 잡지에 나타나게 된 것도 그러한 위기감에 의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2절에 설명하였듯이 ‘조선부락’이 보장하기도 했던 〈재일문학〉은 조선인 조직과 문학표현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 속에 놓여있었고 ‘조선부락’이란 ‘국민(문학)’의 압력 아래에 있기도 했다. 즉 그곳은 안팎의 위기와 밀접한 영역으로, ‘국민’이나 ‘민족’을 재정의할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소멸이나 부인의 위기에 노출되는 장이었다. 즉, ‘조선부락’이 ‘국민’이나 ‘민족’으로 수렴되지 않고, 또 그것을 주제로

30) 梁石日 위의 책, p. 331.

삼은 작품 역시 ‘국민’문학이나 ‘민족’문학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락’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망각, 부인, 소실과 그것들에 대한 저항이 그곳에서 일어나며, 그러한 식으로 작품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선부락’은 다면적으로 ‘이향’인 것이며, 또 안팎의 위기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족의 핵’이라는 기능도 지닌다. 19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문학도 망각, 부인, 소실과 그에 대해 저항하는 와중에서 쓰인 작품들이 많지만, 북한, 남한, 일본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19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의 등장 앞에 앞서, ‘조선부락’은 그것을 지탱하는 불안정한 문학공간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조선부락’도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조선부락’은 ‘민족의 핵’으로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핵’은 종추월(宗秋月)이나 안후키코(安福基子)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봉건적 가치를 품고 있기도 하다. 또 그곳은 ‘민족의 핵’이 된 까닭에 일본사회와의 단절이나 마찰을 야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부락’은 재일조선인들에게 희망뿐 아니라 절망을 가져오는 장소로도 그려지게 되었다. 덧붙여 현월(玄月)은 「그림자의 거처(蔭の棲家)」에서 울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조선부락’에서 뉴커머인 조선인(남한인)들을 하급 존재로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식민지주의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인데, 한국 국내였다면 다수였을 이들이 소수로 전환되고 소수인 재일조선인이 다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도 또한 ‘조선부락’인 것이다.

이렇듯 ‘조선부락’은 민족의 핵으로서, 소멸이나 부인의 위기에 대한 저항의 장소로서 정체성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장소로서, 나아가 소수자 내부에서 식민지주의의 재생산마저도 일으키는 장소로서 전경으로나 후경으로나 재일조선인 문학 안에서 지속적인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조선부락’을 근래 한국에서 나온 성과를 참고 하면서,³¹⁾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것을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접수: 2014년 5월 2일 / 심사: 2014년 5월 2일 / 게재확정: 2014년 5월 21일

³¹⁾ 한국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놀랍도록 심화되고 있으며, 김응교, 추석민, 이한정, 유숙자, 조관자, 윤송아 등이 정력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국어단행본, 외국어논문

- 李孝德, “ポストコロニアルの政治と‘在日’文學.” 『現代思想』. 青土社. 2001년 7월 임시증간호.
- 磯貝治良. 『‘在日’文學論』, 東京: 新幹社, 2004.
- 宮沢剛. “一九五〇年代(から)の在日朝鮮人文學—はみ出すことと遅れること—”, 『文學』, 岩波書店, 2004년 11월호.
- 金石範, “在日朝鮮人文學,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년.
-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の歴史—1945年-1970年”, 一橋大學박사논문, 2010년, (근간 예정)
- 金時鐘, “「猪飼野」の暮れ」 『「在日」のはざまで』, 立風書房, 1986년.
- 金石範, “一在日朝鮮人の獨白②—大阪・猪飼野・朝鮮市場” 『朝日ジャーナル』, 1969년 2월 23일호, 11(8).
- 李殷直, “枝川町一丁目(제2회)” 『民主朝鮮』, 1949년 9월호, 71쪽.
- 南廷揚, “朝鮮人の生活のありかた” 『青年會議』. 1948년 9월호(창간호), 제9권 게재.
- 李殷直, “わが誇りを守らん”, 『朝鮮評論』 제2·3·5·6·7호, 1952년 2·4·9·12월 · 1953년 4월.
- 吳林俊, “たとえ嵐はすさぶとも”, 『朝鮮評論』 제5호, 1952년 9월, p. 58.
-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學出版局, 2013.
- 細見和之, “『ヂンダレ』 『カリオン』의 詩人群像—〈在日文學〉という場のはじまり」, 『復刻版『ヂンダレ・カリオン』 解説・鼎談・總目次・索引』, 不二出版, 2008.
- 宇野田尚哉, “『ヂンダレ』 『カリオン』 『原點』 『黄海』 解説」, 『復刻版『ヂンダレ・カリオン』 解説・鼎談・總目次・索引』, 不二出版, 2008년.
- 吳世宗, 『リズムと抒情の詩學』, 生活書院, 2010.
- キム・ジュッテ, “日本の空」, 『新しい朝鮮』 1955년 4월호.
- 吳世宗, “姜舜 『なるなり』 論—民衆, 鮮部落, 言語戰略としての二つの「翻譯」 『日本東洋文化論集』 제20호. 琉球大學法文學部 (2014년 3월).

문학작품 및 자료

洪宗根. 「もやし露地」, 『ヂンダレ』, 제3호 (1953년 6월).

金時鐘. 『猪飼野詩集』. 東京: 東京新聞出版局, 1978.

鄭仁. 「朝鮮人が日本語で詩を書いていることについて—'ヂンダレ' 創作上の問題」,
『樹木と果實』, 1956년 9월호.

金華奉. 「啞の少年」, 『ヂンダレ』 제19호 (1957년 11월).

鄭仁. 「なくしている現實」, 『ヂンダレ』 제15호,

梁石日. 『夜を賭けて』, 東京: 幻冬舎文庫, 1997, p. 301.

『復刻民主朝鮮』. 第四卷. 東京: 明石書店, 1993.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一〇卷.

“Chosun Burak” as a Border Zone of Kukminmunhak:
Focused on 1940s to 1950s Literature

Oh, Se-Jong (University of the Ryukyus)

This paper tested the hypothesis that before the so called “Korean Japanese Literature” which drew attention around 1970, there was a place and topic called “Chosun Burak” supporting the advent of “Korean Japanese Literature”. In this context, various literature in the representative Japanese magazine of 1940s and 1950s, 『民主朝鮮 Minju Chosun』 『チンダレ Jindal-lae』 was analyzed. Moreover works of Kang Soon(姜舜), a poet who left many poems on “Chosun Burak” of 1950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ypically shown in the works of Kang Soon, “Chosun Burak” was a village placed on the borderline of Korea and Japan. On this account, in “Chosun Burak” multiple languages were used, no one belonged to either South or North, historical memories lingered and also “Chosun Burak” was foundation on which Korean Japanese lived. Thus “Chosun Burak”, as a place and topic was not bounded to particular “people” nor “nation”, rather it was something that resisted all those. This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Chosun Burak” and “Korean Japanese Literature” after 1970s overlap making “Chosun Burak” an unstable space of literature that anteceded and supported “Korean 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Chosun Burak, Minju Chosun, Jindal-ae, Kang Soon, Korean Japanese Literature, Kim Si Jong, Hometown, Homeland, Japanese Literature, Kukminmunhak

오세종(吳世宗, Oh, Se Jong).....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류큐대학(琉球大學) 법문학부 류큐아시아문화전공 부교수이다. 주요 저술로는 “리듬과 서정의 시학: 김시종과 단가적 서정의 부정”, “허남기론: 역사이야기의 구축과 역사적 사건에서부터의 철퇴” 등이 있다.

역자: 이한결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동양사) 석사, 현재는 일본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동양사전수에서 20세기 전반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석사논문은 “경성제국대학 만몽문화연구회의 조직과 활동”이다. 역서로 『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백영서 공역, 창비, 2013)이 있다.